



(2026년 9월 3일 목요일 19면)

10대 송파구의회 개원...소통과 신뢰 '생활 의정' 다짐 손병화 의장 "생각의 차이는 정책 완성도 높이는 힘" 강조



손병화 의장을 비롯한 제10대 송파구의원들과 구청 주요 간부들이 개원기념식을 마친 뒤 상생 협력과 힘찬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가 지난달 26일 송파문화예술회관 2층 강당에서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하고, 65만 구민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화 의장을 비롯한 제10대 송파구의회 의원들과 서강석 송파구청장, 역대 의장들, 관내 주요 유관 기관장 및 지역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제10대 의회의 뜻깊은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송파하모니카 시니어 연주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원 기념사, 축사, 케이크 커팅, 기념 촬영 및 다과회 순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손병화 의장은 개원 기념사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열린 의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의회,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제10대 전반기 송파구의회의 지향점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특히 손 의장은 의회 내부의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깊이 있게 피력했다. 손 의장은 "27명 의원 모두의 생각이 갈을 수는 없고, 어쩌면 같아서도 안 될 것"이라며 "하나의 조명 아래에서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듯, 의회 역시 서로 다른 각도의 시선이 부딪히고 교차해야 송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환하게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각의 차이는 결란들이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다양한 민의가 교차하는 건강한 의회의 역할을 역설했다.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명하고 원칙 있는 협력의 기준을 제시했다. 손 의장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하겠다"라며 "협치는 좋은 날에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 구민 앞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때 서로의 책무를 다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날 송파구의회의 기틀을 단단히 세워준 역대 의장들과 관내 유관 기관장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 손 의장은 "선배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주신 역사 위에 우리의 고민과 노력도 의미 있는 변화로 남기를 바란다"라며 "더 깊이 듣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여 구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파구의회는 이번 개원기념식을 계기로 초심을 다지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홍준성 기자 / rolf1116@naver.com

19면 강한욱 동작구의회 의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 선출